2015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장애·비장애통합성교육에 대한 의견서

작성: (사)탁틴내일

올해 초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였습니다. 표준안의 성교육 내용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해 없이 제작된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학생들이 성에 관한 올바른 태도와 지식을 갖도록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을 아우르는 통합성교육입니다. 특히 장애 학생이 속해 있는 일반학교 내의 일반학급에서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함께 성교육 하는 것이 장애·비장애 통합성교육입니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통해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들이 성적존재로서 건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통합학급을 위한 성교육 교사용지도서: 함께 어울리는 탁 트인 세상, 2012)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표준안)이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 된 이후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맞는 성교육 매뉴얼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 대한 고려 없이 제작된 현재 성교육 표준안을 기본으로 학교 내 성교육을 실시한다면 장애학생들뿐 아니라 비장애학생의 성가치관, 성적 권리의 왜곡이 우려됩니다.

그동안 장애인의 성적 행동과 성적발달은 부모나 교사의 무지 및 무관심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도외시 되어 왔습니다. 금번의 표준안에서도 여전히 장애인의 성인권에 대한 부분이 전무하여 이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표중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성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

표준안의 도입배경을 보면 '「성교육 표준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것이 성교육 내용의 계열화이다. 학교급별, 학생발달단계별로 위계가 고려된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맞이하게 될 때에는 성교육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올바른 성의식과 성 가치관을 지니고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규범을 실천하며 이를 행동화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이해 없이 학교급별, 학생발달단계별 위계만을 고려함

○ 결혼, 부모되기, 출산 및 자녀양육을 강조하고 있음

초등고학년 지도서(95p) 결혼과 관련된 단어를 제시하여 연상되는 단어 알아맞히기 (드레스, 여행, 턱시도, 반지, 시계, 원앙금침, 사랑, 연지곤지 등). 제시된 단어 이외에 '결혼'하면 떠오르는

단어 발표하기

⇒ 1. 장애인 특히,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결혼 확률이 낮은 현실에서 사춘기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생리, 성호기심, 성욕구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교육 없이 결혼, 부모되기가 강조되고 있어 교육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더 위축되고 성에 대한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음. 불임(예, 다운증후군 남성)으로 인해 출산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2. 결혼, 부모되기, 출산, 자녀양육의 경우 지금의 가족을 중심으로 부모 역할, 자녀역할 등을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함. 부모의 삶을 통해 학생 스스로 결혼을 선택하도록 하여야함.

3. 결혼 관련 단어 예시가 형식적인 결혼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결혼을 선택하는데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

4.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해야함. 생활시설, 그룹홈 등에 거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없음

○ 동성친구와 이성친구의 구분이 강조됨

초등고학년 지도서 (92, 104p)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편견은 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 다른 친구와의 차이를 알고 서로 존중하며,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킨다면 건전하고 멋진 이성 친구의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 '남자라서, 여자라서'라는 편견은 버리면 멋진 이성 친구의 만남을 강조하기보다 남녀구분 없이 친구로서 우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다루어야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또래관계 형성이 어렵고, 부적절한 친밀감 표현(예, 안아준다거나 툭툭 치는 행동 등)이 상대방 친구에게는 성행동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래친구와의 친밀감표현, 관계형성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함. 특히 학교 밖에서 또래친구들과 여가문화를 즐길 기회가 부족함으로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여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가 예의를 지키는 건전하고 멋진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랑의 감정이나 성적인 느낌은 데이트, 사랑을 주제로 구분하여 지도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예방교육이 성폭력피해자가 주의하여야하는 내용을 담아 피해자 유발론을 강화하고 있음.

중학교 지도서(222p) 이성교제 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 '친구들끼리 여행가지 않는다', '밤늦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 말라', '피해자의 거절과 아니오'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성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주변 도움이나 안전한 환경에 대한 교육이 우선되어야한다. 성폭력은 사회의 문제인데 성폭력피해가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처럼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의 중학교 지도서(222p)는 우리사회의 성폭력 통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매우 위험하다. 잘못된 성교육과 사회의 성인식으로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발론의 잘못된 성폭력통념을 적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인양 그릇 해석되고 그 결과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가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교육부의 표준안은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생활연령에 맞는 성교육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는 반인권적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은 모

두가 성적 주체로 당당히 성교육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표준안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 가치관 정립을 위해 교육 현장에서 발로 뛴 분야별 전문단체나 교사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